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

실천적 도전정신으로 혁신 거듭



김 홍 곤

신성화학기업사 대표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창의 정신과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가는 실천적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을 거듭하여 고객 감동을 위해 지속적인 열정을 기울이는 기업.

지난 1984년 부천에서 창업, 1985년 자동차 내장재 Hot-Melt용 Lami Film 개발을 시작으로 신울라벨, 스티커, 홍삼파우치 필름, 고투명 필름, 기능성 필름(소스, 육수, 면용, 진공필름), 이지필 필름 등 많은 기능성 필름을 개발하여 생산 납품하고 있는 신성화학화학기업사(대표 김홍곤)는 전담 개발실을 운영하며 지속적인 투자로 환경친화적 종합 필름메이커로 성장을 하고 있다.

신성화학화학의 대표적인 제품은 홍삼파우치 필름과 이지필 필름, 기능성 필름이다.

홍삼파우치 필름의 경우 기존의 CPR 필름이 겨울철 터짐현상 및 누액현상으로 단점이 있었으나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LLDPE 필름이다. 이 필름은 한국담배인삼공사에 수년간 납품,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제품으로 내용물 온도가 100도 이하의 세미제품에 적합하다.

또한 이지필 필름의 경우 5년간 전직원이 개발에 전력한 결과물로 지난해 3월 탄생한 필름이다.

이지필름의 경우 대부분이 EVA계열의 원료를 사용,택기성, 평활도, 쉘링강도 등 여러 가지 단점을 갖고 있으나 신성화학에서는 원료를 직접 개발하여 사용, 다른 제품들의 단점을 개선하였으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고객이 요구하는 물성 및 납기에 100% 맞춤 제품으로 생산, 공급하고 있다.

신성화학화학이 이지필 필름 시장에서는 후발 업체임



▲ 신성화학기업사 생산 현장

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체로부터 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이지필 필름은 여러 가지 문제가 필름에서 대두되어 발전하지 못했지만 신성화학에서 이 문제를 해결, 점차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현재 이지필 필름 시장에서는 첫 번째 일반용기+이지필 필름, 두 번째 이지필 용기+기능성 필름, 세 번째 PP시트에 PE코팅+일반필름의 세가

지 형태가 있으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대부분이며 세 번째는 비메이커에서 사용하고 있다.

신성화학에서 생산하는 이지필 필름의 종류는 PE, PP, 면대면, 방담, PET, PLA, PS, PVC, 고주파 등이 있으며 PP, PE용기 재질에 상관없이 사용하는 PE+PP 겸용, PET, PLA, PS, PVC 재질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멀티형 필름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개발한 멀티형

이지필 필름의 경우 이전에는 개발이 되지 않아 뚜껑을 이용한 제품이 대다수인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PET용기 재질(실리콘 코팅, 방담코팅)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는 PET이지필 필름을 개발함으로써 혁신을 가져왔다.

또한 PLA, PS, PVC 이지필 필름 용도로도 기존 제품보다 품질이 뛰어나 명실공히 이지필 필름 전문업체로 거듭나고 있다.

이같이 기능성 전문제품을

SHIN-SUNG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은 김 사장의 이력에서 비롯된다.

고분자화학을 전공하고 엔

지니어링 파트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필름을 생산하는 압출기의 중요 핵심부품인 다이스, 에어링, 스크류, 와인더

등을 직접 설계함으로써 신성화학만의 기계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품과 물성개발은 물론 물성에 따라 기계조건이 맞지 않으면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현장의 애로를 파악하고 자체적으로 기계를 설계, 제작하여 물성과 기계적성을 개발, 기능성 신제품들을 출시하게 된 것이다.

수년간 연구 개발에 치중해 온 신성화학은 이제 다른 기업에서 넘볼 수 없는 개발 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신성화학은 항온항습 기능을 갖춘 냉난방 탱크를 자체로 제작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제품의 품질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압출기가 안고 있는 평활도, Fisye-eye, 탄화물 관리를 강화하여 운영중이며 특히 평활도관리는 플러스, 마이너스(부호로) 3%로 관리함



▲ 이지필 필름(上)과 홍삼파우치 필름(下)

으로서 제품의 안정을 기하고 있다.

이같은 개발 노력으로 필름 업체로는 드물게 자체상표의 필름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항상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으로 양질의 제품을 개발하여 고객만족에 앞장서고 있다.

신성화학에서 개발한 일부

품목은 일본에 수출하고 있으며 외국 유명 수입제품과 비교해도 물성과 품질에서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으로 전직원들이 합심하여 일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이같이 많은 연구개발비와 시간을 투자해 좋은 제품을 개발해도 우리 실정은 국산 제품의 2배에 가

까운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외국제품 사용을 고집하고 있는 업체들을 볼 때 슬픈 감정을 지울 수 없다”는 김사장은 “외국처럼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개발 제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줘 개발을 앞당기고 중소기업도 안정적으로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화, 성실, 근면의 사훈을 바탕으로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 인간존중의 경영을 모토로 내세우고 있는 신성화학기업은 환경친화적 필름메이커, 첨단 정밀화학 및 고분자 영역 확대, R&D 핵심역량 집중, 글로벌 마케팅을 내세우고 있다.

고객과 기업에 대한 신뢰, 가치, 보람, 책임을 우선시하는 신성화학화학의 행보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앞날이 점쳐진다.

대기업과 유져, 중소기업의 공조를 통한 개발이 이루어질 때 우리 포장산업의 발전도 앞당겨져 포장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해 본다. **코**



▲ 신올라벨(上)과 기능성 필름(下)